

## 메리 워드는 항상 빛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녀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영어 전기 저자가 그녀를 이렇게 요약했을지도 모르며 이것을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빛을 사랑했습니다.

이 문장은 메리 워드가 종교재판소 위원장에게 체포되었을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녀의 투옥을 어둠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더 많이 공개될수록 좋습니다. 어둠 속에 숨는 것은 그녀의 무죄에 대해 불공평하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빛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태양이 비추는 낮의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리 워드는 ‘빛’이라는 단어를 주로 하느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인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빛을 통해 하느님이 자신을 청빈 클라라 수녀원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빛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두 달 전, 교황 우르반 8 세에게 보낸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서도 그녀는 빛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주셨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 그 빛은 그 길을 선택하고 사랑하려는 열망,
- 그 안에서 일하려는 사랑의 초대,
-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느님의 교회 안에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지속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얻었습니다.

하느님의 빛, 즉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찾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지식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끄는 목표를 위해 지식을 구하면 당신은 행복해지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단순함과, 교황과 추기경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변호하는 태도를 비판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의 일과 방식에 있어서 어떤 술책이나 이중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순진하지 않았고 반대파들의 영향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성한 일이 은폐를 필요로 하거나, 교황과 자신 사이에 순수한 진실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빛 안에서, 빛을 통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지식과 하느님의 동행과 인도안에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얼마나 용기가 있나요?
-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의 빛을 구해본 적이 있나요?